

일본의양계업

산란계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계란충격도 측정기 로보에그 신발매

유한회사 톰텐(TOMTEN)은 고성능 계란충격측정기 「로보에그」를 발매하였다. 로보에그는 농장이나 GP센터에서 파란이나 실금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로보에그의 충격센서 캡슐을 계란과 같이 같은 라인에서 움직여 파란이나 실금란의 원인이 되는 충격을, 어느 면에서든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농장의 인라인콘베어나 GP머신 등에서 계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므로, 센서캡슐은 계란과 같은 무게·크기·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내장된 3개의 가속도계가 어느 면에서든 충격을 높은 수준에서 측정한다. 측정도의 자료는 센서캡슐에서 측정자의 손 부근의 컴퓨터에 줄 없이 이송되어, 측정자는 충격형태(크기)를 보면서, 설비의 어느 곳에서도 파란이나 실금란의 발생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톰텐에서는 감자 컨설팅에서 시작한 캐나다 SWI사의 고구마 충격측정기 「감자로봇」을 2004년부터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한 감자업계에 소개하여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데 로보에그는 그 자매품이다. 로보에그의 발매에 맞추어 계란에 가하는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압력센서캡슐」과 온도를 추적하여 측정하는 「온도센서 캡슐」을 조화시킨 「로보에그도탈 품질관리 패키지」를 동시에 신발매하였다.

이 패키지는 금년 1월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소개되어, 내방객으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았다. 충격·압력·온도의 3가지 측정 자료는 무선으로 모니터링하여 파란이나 실금란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한편, HACCP 관리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전용소프트에 의해 컴퓨터로 받은 자료를 수시로 전환하여 계란관리파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복미 계란업자는 로보에그에 의해 문제점을 개선한 결과, 파란이나 실금란이 2% 이상 감소한 곳도 있다」고 하면서 일본 산란업계에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계란 엮은 밥 발매

계란유통의 대회사인 요코하마(横浜)계란이 「계란 엮은 밥」을 발매하였다. 밥위에 계란을 엮은 밥은 전용소스가 함께 포장된 포장 밥으로, 이회사의 지정농장에서 생산된 활력있는 햇닭의 계란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1) 미네랄흡수를 촉진하고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E가 일반계란의 5배 정도 함유되어 있고, (2) 닭 사료에 목초액을 첨가하여 냄새가 적은 특징이 있다. 포장에 상미기간과 제조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생산이력추적도 가능한 이 제품은 도쿄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내방객들로부터 관심을 모았었다(계명신문 발췌).



육 계

칼스포린 판매량 증가

칼비스(カルピス)에서 제조·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칼스포린」이 세계 최대의 육가공 회사인 타이슨 푸드사의 육계사육용 사료첨가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칼포스는 유효성분인 고초균의 일종 「바실러스·서브틸러스 C-3102주」에 의해 장내에서 유용균의 증가와 유해균(식중독 등)의 감소, 체중 증가, 건강유지, 가축특유의 냄새 삭감 등이 기대된다.

1995년 농림성으로부터 사료첨가물로서 허가된 칼스포린은 현재 일본이외에 미국, 브라질, 태국, 대만, 한국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칼스포린」의 닭, 돼지의 성장촉진효과와 살모넬라균 등 유해균억제효과가 높게 평가 받고 있다.

타이슨 푸드사에서는 이미 AGP(성장촉진목적로서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육계생산을 실행하고 있고 「칼스포린」을 시험적으로 사용한 시기에 생산효율이 대폭 향상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칼비스에서는 타이슨 푸드사의 칼스포린으로 브라질이나 태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전개하여 사료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마(軍馬)공장에 새로운 제조설비를 건설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H5N1 조류인플루엔자 지정감염증 추진

후생노동성은 4월 H5N1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 질병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여 승인을 받았다. 국민의 의견모집 등을 거쳐 여름쯤에는 정식으로 지정한다.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감염되기 쉬운 신형 인플루엔자로의 변형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신형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H5N1형 그 자체를 지정감염증으로 분류한 것은 2월 세계보건기구에서 조류로부터 감염된 사람의 입원을 권장한 것 등을 반영한 것이다. 지정감염증이 되면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받게 되고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양계장에서 H5N1형이 발생하여 종사자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건강진단이 의무화되고 검사결과를 알 수 있을 때까지 격리나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증상이 없는 경우 지금과 같이 임의 건강진단을 요구하게 된다.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H5N1형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사뿐만이 아니라 수의사도 신고의 의무가 부가된다. 후생노동성에서는 해외에서 H5N1형에 감염된 사람이 질병을 일본내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검역법에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건강진단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성 축산부식육계란과에서는 전국 육계수요조정회의와 전국계란수요연락회의를 열어 육계는 전년보다 1.9% 증가한 5억9천수만수의 출하계획을 보고하였다.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에 의한 수요동향을 파악하고 외식·가공분야에서 국산닭고기의 수요확충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계명신문 발췌).